

광주교육연수원, 28일까지 '덕분에 광주교육' 직무연수 실시

17일간 총 6기에 걸쳐 운영...120여 명 교원 대상

교사들 수고와 노력에 감사·존경 마음 표현한 제목

광주교육연수원이 11~28일 총 6기에 걸쳐 2020년 위드 코로나 시대 '덕분에 광주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13일 광주교육연수원에 따르면 '덕분에 광주교육'은 코로나19에도 현장 교사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광주교육이 유지되고 있다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 제목이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로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을 묵묵히 가면서 학교현장을 지켜온 교사들을 위한 회복과 위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3월 초부터 개학 연기를 비롯한 원격수업 등 사상 초유의 일들을 겪어야 했다.

특히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해 교사들은

각종 연수를 자발적으로 받고 수업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며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

또 등교가 시작되면서 학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체열 측정 및 교실 내 거리두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1일 취임한 광주교육연수원 양숙자 원장은 연수원 직원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지치고 상처받은 교사들을 위한 감사와 위로의 연수를 기획했다.

이번 연수는 120여 명(각 기수별 20명씩)의 교원을 대상으로 17일에 걸쳐 1기부터 6기까지 진행되는데 현장교사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워 일부 기수는 신청 개시 1시간 만에 마감됐다.

1·2기는 한국화를 직접 그리며 마음을 정리하는 '문방사우(文房四友)로 마음 다듬기' 과정이 진행되고, 3·4기는 심리상담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생님, 마음 안녕!' 과정이 진행된다.

5·6기는 커피와 향기 테라피를 통해 마음의 에너지를 채우는 '향기로 마음 채우기' 과정이 진행된다.

연수 시작에 앞서 광주교육연수원 연수기획부 정은주 부장은 연수생들에게 '덕분에 광주교육' 기획 취지와 주요 과정을 설명하고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들이 광주교육의 희망이다"한 인사말을 했다.

'덕분에 광주교육' 1기 연수에 참여한 일곡중 심명남 교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매일 긴장 속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쳤는데 이번 연수 취지와 내용이 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고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우리 교육연수



원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길을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연수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교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장흥회덕중학교, 지역 역사 탐방 나서

해동사·물과학관·동학혁명기념관·방촌유물전시관 등 역사 탐방

장흥회덕중학교(교장 이민호)는 지난 5일 43명의 전교생들이 장흥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지역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탐방길에 나섰다. 이날 학생들은 해동사, 물과학관, 동학혁명기념관, 방촌유물전시관 등 지역 역사 명소를 방문했다.

장흥군 장동면에 위치한 해동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 위패와 영정을 모시고 매년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2020년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을 맞아 장흥군은 '정남진 장흥 해동사 방문의 해'로 선포하여 해동사를 성역화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안 의사에게 쓴 편지가 방문객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돼 있다.

장흥읍 남외리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는 장흥지역에서 22세의 나이로 앞장서서

싸운 여성농민군지도자 이소사, 13세 농민군 소년 장수 최동린, 농민군들을 피신시킨 16세 소년 뱃사공 윤성도 등 알려지지 않은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숨은 주역들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장흥은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최후의 석대들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 석대들은 정읍 황도현, 공주 우금치, 장성 황룡과 더불어 동학농민혁명운동의 4대 전적지로 꼽히는 곳이다.

관산읍 방촌리에 위치한 방촌유물전시관은 호남 실학의 대가 존재 위백규 선생의 유물을 보존하고자 2005년 10월에 개관해 2000여점의 유물을 순환 전시하고 있다.

장흥회덕중학교 학생들은 우리 고장의 역사에 대해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그 동안 모르고 지냈던 장흥의 역사를 현장에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기동취재본부**

순천대 대학일자리센터-학생상담센터, '진로·취업 상담의 날' 운영

1:1 심리검사 및 해석·개인상담 등 서비스 제공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대학일자리센터는 최근 학생상담센터와 함께 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대학 정문 인근에서 '진로·취업 상담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진로·취업 상담의 날'은 학생상담센터와 협업을 통해 진로·취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에게 심리상담과 진로·취업 목표설정 등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존감을 향상하고자 기획하였다.

행사를 통해 순천대 대학일자리센터와 학생

상담센터는 △1:1 심리검사 및 해석 △개인상담 △1:1맞춤형 진로·취업상담 △청년고용지원정책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순천대 양숙향 대학일자리센터장은 "학생들이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상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전문적 서비스를 지원받아 진로·취업 목표설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진로·취업 상담의 날' 뿐만 아니라, 재학생 및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학내에서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인 '화목한 상담Day'를 운영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보성교육청 Wee센터, 맘-품지원단 멘토-멘티 다도체험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관) Wee센터는 지난 14일 보성군 관내 맘-품지원단 멘토-멘티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맘-품지원단의 맘은 엄마와 마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며, 품은 품다로 어머니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이다. 맘-품지원단은 엄마의 따뜻한 품을 제공하는 멘토링 봉사단으로 1:1 혹은 1:2 결연을 통해 정서적, 문화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날 체험은 평소 다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멘토-멘티들에게 오전에는 보성관내 보화다원에서 3보향 열 계승 교육과 연계하여 보성의 특색인 차 예절 교육을 통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성 함양과 맛있는 다식을 만들고, 오후에는 관내 풍선 봉사동아리 '동심'과 연계하여 풍선아트를 체험함으로써 멘토, 멘티들에게 큰 호응과 만족감을 선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성초등학교 멘티 학생은 "다도교육이 항상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예절교육을 받고



다식체험도 하니 새로운 경험이었고 매우 즐거웠다"며 체험 소감을 밝혔다. **보성=김덕순기자**

